

자유와 자본 그리고 평화구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민주평화론과 자본주의평화론을 중심으로

최종건*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건식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국가의 분쟁적 행위를 어떻게 제약하는가를 민주 평화론과 자본주의 평화론을 이론적으로 비교하는 연구이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도출했다.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규범, 제도 그리고 이 둘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평화를 구축한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초점을 둔 자본주의 평화론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평화를 완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건이며 민주주의보다 자유시장 경제가 국가 간 평화를 형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주주의 평화론과 자본주의 평화론의 유사성과 상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자본주의 평화론을 학계에 알려 국가의 행위와 평화를 분석하는 분석틀을 소개한다.

주제어: 자유주의 평화, 자유, 자본주의, 위기

I. 서론

국가의 속성과 전쟁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국제정치 무정부 체제가 전쟁의 원인이라는 구조결정주의는 여전히 간결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확산과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국제정치 무정부 속성에 질적 변화를 초래할 수는 없는 것일까? 예를 들어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한반도의 안보긴장은 좀더 완화되지 않았을까? 중국의 부상이 '민주주의 중국'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중국위협론은 약화되지 않았을까?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금보다 매우 높은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유럽과 같은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지역의 분쟁 및 전쟁 가능성은 지금보다 현저히 낮지 않았을까?

자유주의 진영에서 등장한 민주평화론의 골자는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일수록 전쟁은 소멸된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정치체제 속성이 국제정치의 전쟁과 평화에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체제가 무정부라 할지라도 국가의 속성에 따라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더욱이 공화정 국가들이 상업 정신과 함께 국제 기구를 통해 도출된 합의와 규율을 국가 간 그리고 국제정치의 작동 방식으로 규범화한다면 국제정치의 평화는 매우 공고화 될 것이다. 이것이 민주평화론의 철학적 근간인 칸트의 영구 평화론(Perpetual Peace)이며 평화의 삼각구도론(Triangulating Peace)이다(Kant, 2007[1795]; Russett and Oneal, 2001).

민주평화론은 미국의 대전략에 오래전부터 반영되어 왔다. 냉전말기 레이건 대통령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동부 유럽 공산권에 긴밀한 정책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집권한 미국의 민주-공화당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 확산을 위해 개입(Engagement)정책은 물론 침략 전쟁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국가 속성의 변화가 국제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민주평화론의 결론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평화론은 국가정치체제라는 국제정치 단위(예: 국가) 차원의 변화가

국제정치 그 자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한다. 특히, 맥락적으로 냉전의 종말과 함께 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확산은 ‘민주주의와 전쟁’ 관계를 주목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했다. 1990년대 이후 자유주의 국제관계 이론가들은 평화의 근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되었고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와 국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연결하는 보편 이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와 평화(Doyle, 2005; Henderson, 2002; Kinsella, 2005; Rosato, 2003; Russett and Maoz, 1993; Slantchev et al., 2005; Spiro, 1994), 경제적 상호의존(Gelpi and Grieco, 2008; Milner and Kubota, 2005; Russett and Oneal, 2001)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관계(Choi, 2006; Kim and Russett, 1996; Voeten, 2000) 등으로 분화되어 국제체제에서 서로 다른 국제정치 문제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로 발전되었다. 국내에서도 민주주의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론적 연구(김석우, 2007; 김재천, 2004, 2009; 김형민, 2013; 신윝희, 2006; 이해정, 2008; 정성철, 2013; 최아진, 2006), 경험적 연구(김석우, 2010; 이재철, 2006; 이진명, 2014) 그리고 남북관계(김근식, 201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됐다.

민주평화론의 이론적 발전과 함께 그 한계에 대한 논의도 심화되었다. 분석단위로서 민주주의의 정의와 관찰영역의 불분명성과 함께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명확히 제공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들어냈다(Farber and Gowa, 1995; Layne, 1994; Vincent, 1987; Waltz, 1993).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국가 간 평화에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경험적 질문과 함께 국가 속성이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정치제도여야 하는가라는 보다 원론적인 질문도 제기 되었다. 평화를 구축하는 핵심 변수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로 집중되는 가운데, 시장의 힘이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는 주장이 베데(Erick Weede)에 의해 제기 되었고, 평화의 원인으로서 자본주의에 초점을 두는 자본주의 평화론(Capitalist Peace)이 학계에 등장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평화론은 국가 간 평화를 설명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번영과 국

가의 발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보다 더 유용하다고 주장한다(Weede, 2004: 155). 개인의 경제적 자유(예: 사유권 보장)는 분쟁을 추구하려는 정책결정자를 제약함으로써 국가 간 평화를 구축하게 한다. 즉, 민주주의라는 정치 속성보다 자본주의 속성이 독재자의 전쟁 야욕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적 이익 공유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유사성이 국가 간 평화 공존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민주평화론과 자본주의평화론은 자유주의 학파에서 제공하는 단위수준의 국제정치이론이다. 이 두 이론의 공통된 특징은 국가 단위의 정치와 경제 제도의 유사성이 국제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한결 음 더 들어가 살펴보면, 개인이 얼마나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가가 국가의 속성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국가가 가지게 되는 유사성이 상호간 강화될수록 국제정치는 평화롭게 된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 이론이 제1분석수준에서 간과하고 있는 분석 단위로써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자유를 다루고 있으면서 평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국제정치학에 제공한다고 인식한다. 이는 세계화된 경제가 국제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구조적 문제와는 분석수준이 다르다. 즉, 민주주의 발달과 자본주의 진화는 결국 개인의 자유 수준이 얼마나 정치와 경제 차원에서 보장되는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및 정치의 제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전쟁과 평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진은 이러한 시각이 여전히 치밀한 이론적 고민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본 연구는 민주평화론과 자본주의 평화론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이익이 국가 간 평화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함께 II장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III장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이익이 어떻게 구조를 통해 규범화 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규범화가 어떻게 국제정치의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리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IV장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국가 간 안보 위기 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내는지 비교 고찰한다. V장을 통해서도 민주주의 평화와 자본주의 평화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

석하고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II. 개인의 자유와 평화

1. 칸트의 개인 자유와 평화

국제관계이론으로서 자유주의는 칸트(Kant, 2007[1795])에 그 사상적 원류를 둔다. 칸트의 영구 평화 선언은 인간의 이성이 국제관계에 평화와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오늘날 자유주의의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칸트의 자유주의는 시민권, 즉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확보를 평화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로 고려한다. 평화는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확보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이 공화정이다. 이는 시민권과 재산권 보호를 제도화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분쟁 또는 전쟁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으로 이어진다. 결국 국가의 민주주의 특성이 국제체제에서도 발현되고 규범화되어 국가 간 평화를 구축하게 한다(김석우, 1997: 87-88).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작성되던 18세기 후반은 프랑스 혁명기로 전제군주제가 주된 통치 형태였지만 한편으로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 사상이 새로운 주류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칸트는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에 체결된 바젤조약(Basel Treaty)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일시적인 휴전 조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유석성, 1996: 126). 칸트는 전쟁의 지속상태 그리고 전쟁을 종결짓지도 못하는 임시방편적인 조약에 실망하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인간 사회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영구평화론'에 담아냈다(오영달·하영애, 2010: 153).

칸트는 국가 간 전쟁과 평화에 대한 반목을 벗어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공화정 헌법(Republican Constitution), 경제적 상업정신(Commercial

Sprit) 그리고 공화국들의 평화 연합(Foedus Pacificum) 조건에 대한 논의를 영구평화론에 담아냈다. 특히 그는 이 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영구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Doyle, 2005; Russett et al., 1998).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제1확정 조항을 모든 국가의 체제가 공화정이어야 한다고 명기한다. 공화정이란 개인의 자유가 법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는 체제로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자유, 순종 그리고 평등을 말한다. 칸트는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 공화제를 택한 국가들 사이에서 영구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공화정 체제의 정치지도자는 법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전쟁 선포와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동의와 승인을 시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정,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의 정책 결정자는 전쟁을 결정하는데 제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취하지 않은 국가들은 전쟁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전쟁 비용이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낮아 분쟁 결정에 대한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칸트는 공화정뿐만 아니라 상업정신 그리고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와 같이 개인의 경제 활동 보장이 국가 간 평화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았다(Doyle, 1986: 1157).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형성되는 국제관계는 국가 사이에 협력과 이해를 촉진시키고 동시에 국가 간 갈등과 오해를 줄여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 설립이 용이하다(Oneal and Russett, 1997: 267-293). 결국 칸트는 국가들이 공화정 헌법과 상업정신에 기반한 정치·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이들 국가들이 연합의 형태를 보인다면 국제체제에 영구적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칸트의 상업적 자유주의(Commercial Liberal Peace)에 기반한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다. 이들은 개인의 사적 자산과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관계가 평화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McDonald, 2009: 33). 국가들의 경제적 고립과 보호주의 또는 제국주의 경쟁은 정치적 갈등을 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 무역은 사적 자산과 경쟁시장을 통해 국가들 사이에 전쟁을 억지함으로써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자유무역이 국가의 규모나 본질에 상관없이 모든 행위자에게 상호 이득을 가져다주며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창출한다는 주장(Richard Cobden, 1804-1865)은 당시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이었다(Morley, 1903: 276). 과거에는 전쟁이 국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 그러나 시장체제(Market System)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가는 전쟁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기존 부의 축적 수단이었던 전쟁은 점차 무용하게 되었다. 고전적 자유주의 시각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평화의 핵심근원으로 고려하였고 개방 경제와 상호의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전쟁 비용 보다 높기 때문에 상업정신에 기반한 국가체제를 가진 국가가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 보았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에 기반을 둔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이후 개인의 재산권을 고려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30년대 경제적 상호의존의 감소, 두 번의 세계 대전과 냉전기의 미소 간 대립은 무역이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가설이 틀렸음을 보이면서(Carr and Cox, 2001; Morgenthau et al., 2005). 자유주의 평화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자유에 초점을 둔 민주평화론으로 발전되었다. 한편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둔 자유주의 평화론은 제한적으로 상업주의 평화론(commercial peace)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평화에 대한 근원으로서 국가의 경제적 특징을 재고려하는 자본주의 평화론이 대두되고 있다.

2. 개인의 이익과 국가 행위

전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분석 수준에 따라 개인, 국가 그리고 체제의 세 가지 수준을 통해 이를 분석할 수 있다(Waltz, 2001). 국제정치 이론의 주류라 할 수 있는 현실주의자들은 전쟁의 원인이 국제체제의 무정부 속성에 있

다고 본다.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조(self-help) 상태에 놓인다. 때문에 국가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군비 증강을 기반으로 세력 균형을 추구하고 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즉 국가의 행동은 국제체제로부터 제약을 받는 외생적 특성을 가진다(Waltz, 2010).

한편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국가의 속성과 국내의 사회적 유형이 국가의 이익을 결정한다고 고려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는 국가와 시장 경제와 복지에 가치를 두는 자본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은 독재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의 이익이 서로 다르게 규정된다는 논리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신념과 문화는 서로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물질적 안녕과 보호에 관심을 두며 이익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자유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상호 간 협력을 통한 조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기보다 모든 개인의 이익을 인식하고 보호하는 조건 아래에서 자유가 영위되어야만 이익의 조화가 완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민주평화론자들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고 조화를 만들 수 있는 조건으로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전제했다(Owen, 1994: 94).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국가 특성을 결정한다고 고려한다. 국가 이익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정치적 권리가 외교정책에 반영되는 내생적 구조를 가진다. 특히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는가에 따라 국가의 외교적 특성이 평화 또는 공세로 나타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의 외교행위는 정부 내 다양한 기구들의 협의와 대중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Maoz and Russett, 1993: 626). 언론의 자유와 규칙적인 경쟁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시민들은 정책 결정자의 정치적 결정을 평가하고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를 통해 정책 결정자를 체벌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결정자는 전쟁을 목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때도 시민들의 지지

를 요구하기도 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제도적 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평화적 성향을 가진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국민 다수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 비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지지하는 주요 집단만 고려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동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 같은 조건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자원의 동원이 어렵고 전쟁을 위한 준비도 오래 걸려 평화지향적이라 고려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더욱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는 특징도 갖는다.

민주평화론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정치적 차원에서 고려했다면, 자본주의 평화론은 국가 간 평화를 구축하는 결정적 요소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평화론을 국제관계이론으로 처음으로 도입했던 베데(Weede, 1996, 2003, 2004)는 민주주의 보다 국가의 경제 발전이 국가 내 그리고 국가 사이의 평화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통한 경제 번영 없는 민주주의는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무역, 해외투자, 금융 개방 그리고 국가 내 사유재산의 확대와 같이 자본주의 특징들이 국가들 사이에 평화를 구축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평화를 구축하는 인과성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의 특성으로서 자유무역과 경제적 번영이 민주주의 보다 결정적이라는 주장이며, 이를 ‘자본주의 평화론’이라고 한다(Weede, 1996).

자본주의 평화론은 기존 상업적 자유주의의 학문적 사조를 계승하지만 국가 간의 상호의존의 관계를 넘어 탈냉전 이후 확대되는 시장(market)의 역할에 관심을 둔다.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축적하게 하는 경제 기능을 가진다. 이 같은 시장은 국가 경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해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도록 국가 이익에 대한 선호를 변화 시킨다. 특히 시장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행위자들을 쌍방향적 관계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에 참여한 행위자들에게 다양한 선호를 부과함으로써 갈등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축적할 수 있게 하며 국가가 가지는 전쟁과 점령에 대한 선호를 변화시킨다(Gartzke, 2007).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는 전쟁을 통해 획득하는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부족한 자원을 시장을 통해 획득한다. 특히, 현대전의 경우, 과거와 같이 점령을 목적으로 비용이 드는 노동집약적인 군사 전략보다는 최첨단 무기에 기반한 자본집중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시장 경제체제를 가지는 국가는 비용이 되는 전쟁보다는 시장을 통해 자원을 획득함으로써 평화지향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시장 변동에 민감해하고 시장 안정화에 직·간접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용이하게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에서도 경제 성장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된 바가 있다. 브레머(Bremer, 1992)는 민주주의의 평화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하던 중 경제 발전과 평화의 상관성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가츠크(Gartzke, 2005, 2007)는 경제적 자유와 같은 자본주의 요소가 민주주의보다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다는 것을 보였다.

자본주의 평화는 결국 경제가 정치에 선행한다는 논리 구조를 가진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시장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발현되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민주주의 정치구조를 가진 국가들보다 더 평화롭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평화, 즉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향유하는 국가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국제관계이론 영역에 대두되고 있다.

III. 자유주의 규범과 평화

1. 민주주의 평화와 규범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분쟁이 발생되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이 침해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국가의 분쟁적 행위를 억지한다. 또한 민주국가의 정치적 행위자들은 정치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규범을 가진다. 민주평화론자들은 이 같은 민주주의의 평화적 해결 방식이 민주주의를 택한 다른 국가에서도 작동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Maoz and Russett, 1993; Weart 1994).

마오츠와 러셋(Maoz and Russett, 1993: 625)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규범과 안보에 관한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한다. 첫째로 국가들은 국내 정치적 과정과 제도를 통해 발전된 행위 규범을 상호 공유한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 내의 경쟁은 제로섬이 아닌 상호 공존하는 안정성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비민주주의 국가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제로섬 경쟁이며 국내 정치적 갈등은 폭력과 강제를 통해 이뤄진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들의 내적 규범은 동질적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규범으로 작동되고 제로섬 속성보다는 공존의 규범을 구축한다.

둘째는 비민주 국가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보다 국제체제의 무정부 속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폭력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이들은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호혜적 전략을 사용한다. 한편 비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 특성은 안보 우선의 특성을 보이며 이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제로섬 형태를 가진다. 때문에 이들의 강제적 행동 규범은 상대 국가 또는 적 사이에 발생된 문제를 폭력을 통해 해결하려 하며 비민주주의 국가들 사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쉽게 전쟁으로 치닫는다. 비민주주의 국가는 정책 결정자의 선택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정치 환경을 가진다. 이는 비민주주의 국가의 정책결정자가 전쟁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Huth and Russett, 1993; Maoz, 1989; Maoz and Russett, 1992).

민주평화론의 국제적 규범성이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비판도 상존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규범이 국가 행위를 근본적으로

결정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Starr, 1997: 159-160). 다시 말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민주주의 규범에 그 원인이 있는가에 대한 인과성의 문제이다. 고바(Gowa, 1995)는 규범이론과 이익에 기초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구분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그리고 양극체제와 헤게모니 기간 동안 민주주의 국가들의 행동은 공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공동의 이익에 기초한 행동이었다는 설명이다. 민주주의의 규범성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민주주의 규범에 따라 국가 행위를 설명하기보다 이익에 기초한 설명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분쟁 참여에 대한 근본적 원인으로 더 많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Brawley, 1993; Kacowicz, 1995; Lemke and Reed, 1996; Rousseau et al., 1996; Schweller, 1992).

2. 자본주의 평화와 규범

민주평화론이 국가 간 평화를 구축하게 하는 규범성의 근원을 민주주의에 있다고 보았다면, 자본주의 평화론은 시장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적 속성이 계약을 통해 규범성을 가지며 이 같은 특징이 국가 간 평화의 규범으로 작동된다고 주장한다. 무슈(Michael Mousseau)는 민주평화론이 경제 발전과 시장과 같은 자본주의의 특성을 정치적 요소보다 하위의 개념으로 고려해 자본주의의 평화적 특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Mousseau, 2009: 54-57). 또한 초기 자본주의 평화론에 대해서도 평화를 구축하는 핵심 변수로 경제 발전과 자유시장만으로 국가 간 평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시장 그 자체로서의 기능보다 시장을 구성하는 행위자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적 행위자는 시장에서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추구하며 이들의 경제적 행위는 국가적 차원에서 계약집중경제(Contract Intensive Economy)를 구성하게 되고 국내 정치에서의 계약 경제 방식은 국제 관계에도 규범으로 작동되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Mousseau, 2000, 2009, 2010a, 2010b, 2013).

경제 발전은 시장경제에서 계약(Contract)의 형태로 나타나며 경제 행위 주체자들 사이에서 경제 규범으로 작동된다(Mousseau, 2000: 477).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소유한 노동과 상품 교환을 위해 일면식 없는 이방인과 상호 타협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양측의 상호 합의된 이익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는 경제 행위의 결과물이다. 계약자들은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상호 계약의 의무를 실현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진다. 양측의 자유의지와 보편적 신뢰에 기초한 계약은 경제 규범 형태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 사회정치 규범으로 전환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상호간 민주적 제도로 전환된다는 논리이다. 국가는 이 같은 전환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법을 통해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국가내 계약 관계는 국가 간 계약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무슈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계약집중국가(Contract Intensive State)로 규정하는 반면에 계약관계가 취약한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를 후견 국가(Client state)로 구분하고 계약집중국가가 보다 평화적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Mousseau, 2009: 58). 계약집중국가에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지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시장에 의존한다. 때문에 경제 행위자들은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개인의 이익에 비용을 부과하는 분쟁 또는 전쟁을 지양하는 선호를 가지게 된다. 이 같은 체제에서 개인은 계약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에 관심을 둔다. 특히 이들은 정책 결정권자가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분쟁 또는 전쟁을 결정하지 않도록 제약 요소로 작동한다. 뿐만 아니라 작은 시장 보다 큰 시장이 더 많은 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 계약 집중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른 국가의 주권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한다.

계약집중국가들은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자연상태에서 동맹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Mousseau, 2010b: 4).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법을 통해 국제 질서를 증진시키려 하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의 안보를 위해 협력한다. 국가 간 계약관계는 국가들의 베스트팔렌 조약(Westphalia

Treaty)에 대한 동의와 보호가 대표적이다. 국가들은 계약으로서 베스트팔렌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라고 고려하지만, 계약 기반 질서를 어렵히고 공통의 경제적 이익에 위협을 주는 국가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분쟁에 참여한다(Mousseau, 2009: 63).

후견주의는 중세 유럽의 봉건주의와 같이 개인과 친구, 가족 등의 혈연 또는 지연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경제 구조이다. 후견주의 경제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구성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제공하면서 피후원자의 충성심을 증진한다. 상대적으로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후원자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 같은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의 시장은 경쟁과 계약을 통한 이익 분배가 아니라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익 분배를 이루기 때문에 취약한 시장 경제와 제로섬 형태를 띤다. 후견인에게 안보를 의존하는 피후견인은 후견인에게 더 많은 충성심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후견인이 전쟁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피후견인은 이를 억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후견국가의 전쟁은 경제적 갈등과 체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전환 시키려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파시트와 같은 극단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Mousseau, 2010b: 4).

요컨대, 규범에 기반한 자본주의 평화론은 민주주의가 국가들 사이에 평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국내 경제적 요소, 즉 자본주의가 평화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소라 주장한다. 특히 계약 집중 사회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행위 주체들에게 더 많은 계약의 기회를 주고, 참가자들 사이에 명확한 선호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계약 집중 사회는 자신과 타자의 선호를 고려한 이익에 기반한다. 이 같은 계약 집중 국가들은 근대 국가 체제가 법과 동등한 계약 규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주권에 덜 도전할 것으로 고려한다. 때문에 계약 집중 국가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속하기 위해 베스트팔리아 체제의 보존을 고려했으며, 만약 그들 체제에 도전하는 비계약 국가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응징적 전쟁을 수행한다. 자본주의 평화론의 규범적 적용은 결국 국내 경제적 요소, 투표자와 엘리트 사이의 근본적 합의로서 계약 그리고 국가 간 국제법을 통한 계약 집중 경제를 가진 리더들이 현상 유지 보호를 공통의 안보이익으로 가지며 도전하는 비국

가적 실체에 대해 동맹을 갖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한다.

IV. 안보위기와 평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전쟁 원인에 대한 쟁점은 무정부라는 국제정치의 속성과 국가의 의도가 얼마나 투명한가로 집약된다. 구조론자들은 전쟁이 무정부적 국제체제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들의 불확실한 의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는다(Jervis, 1978; Waltz, 2001, 2010). 때문에 이 같은 공간에 놓여 있는 국가들은 스스로 자신의 안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피어론(Fearon, 1994)과 같은 민주평화론자는 국가의 불확실한 의도가 국가 간 위기 또는 분쟁에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국내 정치 구조가 국가의 의도를 보이는 강력한 신호(signaling)로 작동되어 국가 간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는 상대 국가에게 신호로 작동되고 결국 기존의 국가 간 합의는 준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본주의 평화론자들은 민주평화론이 주장과는 달리 개방 경제와 시장의 세계화(Gartzke and Hewitt, 2010; Gartzke and Li, 2003) 그리고 사적 재산권 등이 국가 간 안보위기를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보다 많은 설명력이 있다고 주장한다(McDonald, 2009, 2010). 이 같은 개념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국가 안보 위기 시 평화를 어떻게 구축하는가를 살펴본다.

1. 위기 시 민주주의와 평화

민주평화론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기 또는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피어

론(Fearon, 1994)과 슐츠(Schultz, 1998, 2001)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청중비용(Audience Cost)에서 찾는다. 청중비용이란 정치지도자가 군사적 위기 시 취한 행동, 특히 이미 취한 정책을 철회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이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국가들은 청중비용을 가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청중 비용의 변동성은 국가의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로 작동된다.

국가 간 발생하는 위기는 국가 또는 정책 결정자에게 비용으로 작동된다. 위기 시 국가는 협상과정에서 공격, 후퇴 그리고 위기의 고조와 같은 외교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Fearon, 1994: 577). 특히 위기라는 사건은 국민들 앞에서 국가 간 벌이는 공적인 사건으로 국가가 협상과정에서 전술한 외교 정책 중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이는 곧 정책 결정자에게 정치적 비용으로 작동된다.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위기가 발생된다면 국가는 상대방의 의도와 동기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상대국가의 의도는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정보(Private Information)로 이를 밝히기 위해서 국가는 타국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의도를 유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쟁에 직면한 정책 결정자는 승리의 가능성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상대적 능력을 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장된 능력과 허세는 분쟁당사자간에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확전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제도적 견제와 책임 논리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환경은 비민주주의 정책 결정자보다 민주주의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많은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안보 위기 시 상대국가에 과도한 위협이나 회유의 정책을 자의적으로 발휘 할 수 없다.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정책이 실패할 경우 재선출되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지도자가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은 전쟁과 같은 극단적 행위 가능성을 낮춘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비용 특성은 갈등관계에 있는 적국에게 자국의 전쟁 또는 평화의 의도에 대한 신뢰성을 보이는 정보로 작동된다. 이는 국가 간 오판을 줄여 분쟁을 억지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안보딜레마를 줄이는 요소로 작동된다.

2. 위기 시 자본주의와 평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평화론자들은 자율적으로 작동되는 세계 자본시장이 국가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시장은 생산요소 또는 국가에 필요한 자원을 해외로 재분배하며 정치지도자의 발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의 이동은 타국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비용이 되는 신호로서 작동되어 국가 간 평화를 구축하게 한다.

자본은 국가 위기 시 정치적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다면 빠르게 이동한다. 주식시장의 폭락과 자본유출은 국가안보위기 상황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정치지도자가 정치적 목적 실현과 시장 기능 강화라는 두 가지 선택에서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 또는 전쟁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정책을 결정한다면 자국 내 투자자들은 신속하게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동시켜 전쟁을 선택하려는 정치지도자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때문에 자본은 국가 간 평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Gartzke et al., 2001: 391). 특히 자본의 상호의존 자체는 분쟁 시 국가가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작용하는데, 국가들 사이에 경쟁을 억지하고 비군사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무역의 상호관계보다 금융의 상호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국제 자본을 통한 상호의존은 상품과 서비스 교환보다 변동성이 더 크며, 자본 시장은 국내 경제 영역에서 더 많은 연결성을 가진다(Gartzke et al., 2001: 392). 자본의 높은 변동성은 정치지도자에게 사전에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작동된다. 따라서 분쟁 발생 이전에 사전적(ex ante)으로 작동된다면 국가들은 상호간 허세(Bluff)를 하지 않고 갈등 또는 전쟁의 발생 이전에 협상할 수 있게 해 평화를 증진하게 한다(Gartzke and Li, 2003: 562).

기존 자유주의자들이 국가의 경제적 이득과 전쟁 비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때문에 국가 선호가 변화될 것으로 보았다면, 자본주의 평화론은

무역과 같은 경제 행위의 기회비용은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비판한다(Gartzke and Hewitt, 2010: 122). 예컨대 전쟁 비용은 상호의존적 무역관계에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급경제를 가진 국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평화론은 국가의 이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장의 역할에 주목하며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자본주의 개방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는 폐쇄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 보다 안보 위기 및 분쟁 발생시 협상 과정에서 안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 선호를 나타낸다(Gartzke et al., 2001; Gartzke and Li, 2003; Gartzke, 2007). 가츠크는 이러한 선호가 자본개방이 높은 국가일수록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Gartzke and Hewitt, 2010). 따라서 시장의 통합과 자본의 개방정도는 국가 안보 위기 시 국가로 하여금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시장과 자본은 국가들의 선호를 변화시킨다(Gartzke and Hewitt, 2010: 123). 기존 현실주의자들은 국가 간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은 제한된 자원에 대한 선호 이익이 상호간 제로섬이라 보았다. 그러나 가츠크는 국가의 이익은 국가의 가치 우선순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므로 현실주의자들의 이익에 대한 설명은 국가의 이익을 제한적으로 보았다고 비판한다. 국가의 경제 발전은 국가 간 발생할 수 있는 제로섬 형식의 자원 경쟁을 넌-제로섬(Non-Zero Sum) 형식의 자원 경쟁으로 바꿈으로써 국가의 선호를 변화시킨다.

V. 결론

국제정치의 영구적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오늘날 민주주의 평화론과 자본주의 평화론의 두 갈래로 진화했다. 민주평화론과 자본주의 평화론은 국가 단위 수준의 국제정치 이론으로서 국가의 정치 그리고

경제 제도의 유사성이 국가 간 분쟁과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구축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한다. 이 두 이론은 정치적 제도와 경제적 특성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행동 규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 제도가 유사한 국가들 간의 국제정치는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더욱 평화로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확산과 경제의 세계화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다 긍정적인 현상이며, 국제정치 무정부의 성격에 변화를 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한다. 즉, 세계연방 정부가 출현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세계적 수준으로 확산시킨다면, 국제정치의 항구적 평화는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자본주의 평화론은 여전히 실증적 검증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한편으로는 매우 이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평화의 관계에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Mueller, 2010; Russett, 2010; Schneider and Gleditsch, 2010). 먼저, 자본주의 평화론은 국가의 대외정책과 개인 그리고 시장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제적 발전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침략전쟁은 여전히 중요한 국제정치의 화두이다. 둘째로, 국제정치의 분쟁과 금융자본의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의 세계화와 평화의 인과성에 대한 연구는 보다 치밀한 연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자본’과 ‘자유’는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자유와 자본의 세계화는 국제정치의 성격과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경제가 세계 유일의 정치경제 규범의 될 경우, 분명 국제정치 무정부 속성에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C 초 유럽에서 풍미하던 자유주의에 기반했던 국제정치 이론이 21C 초 세계적 차원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대와 함께 민주주의 없이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중국의 부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주의적 시각 그리고 민주평화론의 시각을 통해 민주화 없는 중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위태로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 평화론은 미중관계를 보다 낙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정치체제가 이질적인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사

이에 전쟁의 가능성이 높다는 민주평화론의 예측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의 자본주의가 유사해지고 상호 보완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이 두 국가의 관계적 안정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민주화 보다, 자본주의의 도입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현실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자본주의 평화론적 처방이 가능하다. 북한의 민주주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의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에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평화론의 대두는 평화를 구축하는 근원으로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선후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 평화론이 국제관계이론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완성하기에는 아직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확산 그리고 해답없는 민주화 없는 중국식 자본주의와 남북관계의 미래를 그려보는 분석 도구로 유용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5-06-08 심사일자: 2015-06-09 게재확정: 2015-06-15

참고문헌

- 김근식. 2010. 「탈냉전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연구』(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18권 2호. pp. 139-166.
- 김석우. 1997. 「민주적 평화와 안보 협상」. 『국제정치논총』(한국국제정치학회) 37집 1호. pp. 83-107.
- _____. 2010. 「민주주의와 국제관계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한국정치외교사학회) 32집 1호. pp. 231-257.
- 김재천. 2004. 「민주 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과 비밀전쟁(Covert War) — 미국의 대(對)칠레 비밀전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한국정치학회) 38집 제3호. pp. 213-233.
- _____. 2009. 「민주평화론: 논의의 현주소와 동북아에서의 민주평화 담론」. 『21세기 정치학회보』(21세기정치학회) 19집 2호. pp. 363-383.
- 김형민. 2013. 「군사분쟁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한국세계지역학회) 31권 3호. pp. 7-32.
- 신윅희. 2002. 「민주적 평화론과 미국의 21세기 전략」. 『미국학』(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5권. pp. 279-304.
- 오영달·하영애. 2010.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조영식의 오토피아평화론 — 세 수준의 이

- 론적 분석]. 『아태연구』(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17권 2호. pp. 149-171.
- 유석성. 1996. 「칸트의 영구 평화론」. 『교수논총』(서울신학대학교) 7권. pp. 125-144.
- 이진명. 2013.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과 분쟁 — 상생 또는 동상이몽?」. 『국제정치논총』(한국국제정치학회) 53집 3호. pp. 69-102.
- 이재철. 2006.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 분쟁의 상관관계 — 경제적 상호의존의 측정 문제」. 『국제정치논총』 46집 3호. pp. 97-120.
- 이혜정. 2008. 「민주평화론의 패러독스: 칸트 평화사상의 왜곡과 오용」. 『한국정치외교사논총』(한국정치외교사학회) 29권 2호. pp. 129-153.
- 정성철. 2013. 「관심전환전쟁이론: 논리와 증거」. 『한국정치학회보』(한국정치학회) 47집 5호. pp. 389-405.
- 조민. 2006. 「평화경제론-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통일정책연구』(통일연구원) 15권 1호. pp. 183-206.
- 최아진. 2006. 「평화의 삼각구도(Triangulating Peace)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세계지역연구논총』(한국세계지역학회) 24권 3호. pp. 371-390.
- 최종건. 2008. 「신현실주의 이론의 ‘무정부 신화’에 대한 구성주의적 비판」. 『한국정치학회보』(한국정치학회) 42집 2호. pp. 345-361.
- _____. 2013. 「신현실주의 기원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함의 — 1959~1979년 월츠의 저작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한국국제정치학회) 53집 4호. pp. 9-37.
- Barbieri, Katherine. 1996. “Economic Interdependence: A Path to Peace or a Source of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33(1): 29-49.
- Brawley, Mark R. 1993. “Regime Types, Markets, and War the Importance of Pervasive Rents in Foreign Polic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6(2): 178-197.
- Bremer, Stuart A. 1992. “Dangerous Dyads Condition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Interstate War, 1816-1965.”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6(2): 309-341.
- Cameron, Fraser. 2005. *U.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Global Hegemon or Reluctant Sheriff?* 2d ed. London: Routledge.
- Carr, E. H. and Michael Cox (Ed.) 2001.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Palgrave.
- Choi, Ajin. 2006. “With Us or Against Us: Major Contested Issues and Resolution Approval Rates i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Korea Observer*, 37(4): 741-759.
- Crawford, Neta C. 1994. “A Security Regime among Democracies: Cooperation among Iroquois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8(3): 345-385.
- Dahl, Robert A. 1999. “Ca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 Democratic? A Skeptic's View.” In Ian Shapiro and Casiano Hacker-Cordn (Eds.). *Democracy's Ed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yle, Michael W. 1986.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4): 1151-1169.

- _____. 2005. "Three Pillars of the Liberal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3): 463-466.
- Economist*. 1995. "Democracies and War: The Politics of Peace." April 1. 17-18.
- Ember, Carol R., Melvin Ember and Bruce Russett. 1992. "Peace Between Participatory Polities: A Cross-Cultural Test of the Democracies Rarely Fight Each Other Hypothesis." *World Politics*, 44(4): 573-599.
- Eyerman, Joe and Robert A. Hart Jr. 1996. "An Empirical Test of The Audience Cost Proposition Democracy Speaks Louder than Word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0(4): 597-616.
- Farber, Henry S. and Joanne Gowa. 1995. "Politics and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20(2): 123-146.
- Fearon, James D. 1994. "Signaling Versus the Balance of Power and Interests An Empirical Test of a Crisis Bargaining Mod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8(2): 236-269.
- Foreign Policy Bulletin. 1993. "The Clinton Administration Begins." 3(4/5): 4-17.
- Fukuyama, Francis. 1989.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16: 3-18.
- Gartzke, Erik. 2005. "Economic Freedom and Peac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5 Annual Report*: 29-44.
- _____. 2007.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166-191.
- Gartzke, Erik and J. Joseph Hewitt. 2010. "International Crises and the Capitalist Pea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36(2): 115-145.
- Gartzke, Erik and Quan Li. 2003. "War, Peace, and the Invisible Hand: Positive Political Externalities of Economic Globaliz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7(4): 561-586.
- Gartzke, Erik, Quan Li, and Charles Boehmer. 2001. "Investing in the Peac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2): 391-438.
- Gelpi, Christopher F. and Joseph M. Grieco. 2008.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the Sources of the Liberal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45(1): 17-36.
- Gowa, Joanne. 1995. "Democratic States and International Dispu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3): 511-522.
- Henderson, Errol A. 2002. *Democracy and War: the End of an Illusion?*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 Herrmann, Richard K. and Jong Kun Cho. 2007. "From Prediction to Learning: Opening Experts' Minds to Unfolding History." *International Security*, 31(4): 132-161.
- Huth, Paul and Bruce Russett. 1993. "General Deterrence between Enduring Rivals: Testing Three Competing Model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1): 61-73.

- Jervis, Robert.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167-214.
- Kacowicz, Arie M. 1995. "Explaining Zones of Peace: Democracies as Satisfied Powers?" *Journal of Peace Research*, 32(3): 265-276.
- Kant, Immanuel. 2007. *Perpetual Peace*. New York: Cosimo, Inc.
- Kim, Soo Yeon and Bruce Russett. 1996. "The New Politics of Voting Alignments i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50(4): 629-652.
- Kinsella, David. 2005. "No Rest for the Democratic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3): 453-457.
- Lake, D. A. 1992. "Powerful Pacifists: Democratic States and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1): 24-37.
- Layne, C. 1994. "Kant or Cant: The Myth of the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19(2): 5-49.
- Lemkea, Douglas and William Reeda. 1996. "Regime Types and Status Quo Evaluations: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22(2): 143-164.
- Maoz, Zeev. 1989. "Joining the Club of Nations: Politic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nflict, 1816-1976."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2): 199-231.
- Maoz, Zeev and Bruce Russett. 1992. "Alliance, Contiguity, Wealth, and Political Stability: Is the Lack of Conflict among Democracies a Statistical Artifact?" *International Interactions*, 17(3): 245-267.
- McDonald, Patrick J. 2009. *The Invisible Hand of Peace: Capitalism, the War Machin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0. "Capitalism, Commitment, and Pea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36(2): 146-168.
- Mearsheimer, John J. 1994.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19(3): 5-49.
- Milner, Helen V. and Keiko Kubota. 2005. "Why the Move to Free Trade? Democracy and Trade Polic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9(01): 107-143.
- Morgenthau, Hans J., Kenneth Thompson and David Clinton. 2005.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United State of America: McGraw-Hill, Inc.
- Morley, John. 1903. *The Life of Richard Cobden*. London: T. Fisher Unwin.
- Mousseau, Michael. 2000. "Market Prosperity,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Democratic Pea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4(4): 472-507.
- _____. 2009. "The Social Market Roots of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 33(4): 52-86.
- _____. 2010a. "Coming to Terms with the Capitalist Pea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36(2): 185-213.
- _____. 2010b. "Capitalism, Democracy, and War." In *APSA 2010 Annual Meeting Paper*.
- _____. 2013. "The Democratic Peace Unraveled: It's the 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7(1): 186-197.
- Mueller, John. 2010. "Capitalism, Peace, and the Historical Movement of Ideas." *International Interactions*, 36(2): 169-184.
- New York Times*. 1994. "Excerpts from President Clinton's State of the Union Message." January 26. A17.
- Oneal, John R. and Bruce M. Russett. 1997. "The Classical Liberals Were Right: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1950-198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2): 267-294.
- Owen, John M. 1994. "How Liberalism Produces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19(2): 87-125.
- Reagan, Ronald. 1984. "Peace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U.S. State Department, *Realism, Strength, Negotiation: Key Foreign Policy Statements of the Reagan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U.S. Dept. of State, Bureau of Public Affairs.
- Rosato, Sebastian. 2003. "The Flawed Logic of Democratic Peace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7(04): 585-602.
- Rosecrance, Richard N. 1986.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Basic Books.
- Rousseau, David L., Christopher Gelpi, Dan Reiter and Paul K. Huth. 1996. "Assessing the Dyadic Nature of the Democratic Peace, 1918-88."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3): 512-533.
- Rummel, Rudolph J. 1983. "Libertarianism and International Viol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7(1): 27-71.
- Russett, Bruce M. 2010. "Capitalism or Democracy? Not so Fast." *International Interactions*, 36(2): 198-205.
- Russett, Bruce M. and John R. Oneal. 2001.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Norton.
- Russett, Bruce M., John R. Oneal and David R. Davis. 1998. "The Third Leg of the Kantian Tripod for Pea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ilitarized Disputes, 1950-85."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3): 441-467.
- Russett, Bruce M. and Zeev Maoz. 1993. "Normative and Structural Causes of Democratic Peace, 1946-198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3): 624-638.
- Schneider, Gerald and Nils Petter Gleditsch. 2010. "The Capitalist Peace: The Origins

- and Prospects of a Liberal Idea.” *International Interactions*, 36(2): 107-114.
- Schultz, Kenneth A. 1998. “Domestic Opposition and Signaling in International Cris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829-844.
- _____. 1999. “Do Democratic Institutions Constrain or Inform? Contrasting two Institutional Perspectives on Democracy an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53(2): 233-266.
- Schweller, Randall L. 1992. “Domestic Structure and Preventive War: Are Democracies More Pacific?” *World Politics*, 44(2): 235-269.
- Singer, J. David. 1961. “The Level-of-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14(1): 77-92.
- Slantchev, Branislav. L., Anna Alexandrova and Erik Gartzke. 2005. “Probabilistic Causality, Selection Bias, and the Logic of the Democratic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3): 459-462.
- Small, Melvin and David Singer J. 1976. “The War-Proneness of Democratic Regimes, 1816-1965.” *Jerusalem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4): 50-69.
- Spiro, David E. 1994. “The Insignificance of the Liberal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19(2): 50-86.
- Starr, Harvey. 1997. “Democracy and Integration: Why Democracies Don’t Fight Each Other.” *Journal of Peace Research*, 34(2): 153-162.
- Vincent, Jack. 1987. “Freedom and International Conflict: Another Look.”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1(1): 103-112.
- Voeten, Erik. 2000. “Clashes in the Assemb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54(2): 185-215.
- Waltz, Kenneth N. 1993.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18(2): 44-79.
- _____. 2001.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United States of America: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2010.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United States of America: Waveland Press.
- Washington Post*. 2008. “Q&A: Obama on Foreign Policy.” March 2.
- Weart, Spencer R. 1994. “Peace among Democratic and Oligarchic Republics.” *Journal of Peace Research*, 31(3): 299-316.
- Weede, Erich. 1996. *Economic Development, Social Order, and World Politics*.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 _____. 2004. “The Diffusion of Prosperity and Peace by Globalization.” *Independent Review*, 9(2): 165-186.
- _____. 2005. *Balance of Power, Globalization and the Capitalist Peace*. Liberal-Verlag.
- _____. 2010. “The Capitalist Peace and the Rise of China: Establishing Global Harmony by Economic Interdependen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36(2):

206-213.

Williams, Howard Lloyd (Ed.). 1992. *Essay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iberty, Capital and Liberal Peace Build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Democratic Peace and Capitalist Peace

Jong Kun Cho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Kun Sik Hong

Ph.D. Candidat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wo peace theories from the liberal school of thought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emocratic Peace Theory and the Capitalist Peace Theory. We pay attention to how each theory deals with private property and political liberal and connect them to how each variable produces the pacifying effects on inter-state relations. In so doing, we introduce the capitalist peace theory and compare it with the democratic peace theory and delineate how each theory has its origin from Kant's perpetual peace and yet differ in their theoretical treatment of how peace can come abou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ll in all, we argue how the economic factors delivered by the capitalist peace can also be as powerful as democracy in explaining peace mak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Keywords: Liberal Peace, Liberty, Capitalism, Crisis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희관 113-1호
E-mail_jongchoi@yonsei.ac.kr

홍건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희관 502호
E-mail_hks21c@yonsei.ac.kr

